■ 현대불교, 사찰·불서점 95곳 법보시실태 조사

경전류-2천원대 '선호'

"49재·초파일때 법보시" 80%
목록다양화-소책자화 '필요'

◇불교를 심도있게 공부하는 적극적 신행생활로 법보시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사진은 최근 법보시용으로 인기있는 경전과 불서들.

법보시에 대한 인식이 과거 '형식적인 인사치례'에서 '의미깊은 선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법보시 책 제작자 쪽이나 받는 쪽 모두 법보시 책의 종류 다양화와 내용 보강, 편집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가 3월2일부터 9일까지 전국 각 사찰 및 불교관련서점 95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신도들이나 일선사찰 대부분이 법보시는 필요하며,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님을 친견하거나 사찰을 찾는 종전의 단순한 신행행태에서 생활속에서 부처님 말씀을 항상 접하고 교리 등 불교전반에 대해 심도깊게 공부하는 적극적 신행생활로 바뀌는 추세로 볼 때 법보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법보시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경우는 49재등 천도재때로 80%이상이었으며, 부처님 오신날 회갑 백중 생일 득손(得孫) 순으로 책 법보시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로는 경전류가 9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단연 압도적이었는데 이중에서도 〈금강경〉이 50%정도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지장경〉〈부모은중경〉〈불설아미타경〉 등이 30~40%대로 인기를 끌고 있었다. 일반류로는 생활속의 기도법, 기초교리, 부처님 생애 등을 꼽았으나 10%이내였다.

제작시 권당 가격은 2천원대가 95%이상이었으며 총가격단위는 30만원대가 가장 많았고 1백만원대도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당한 권당 가격에 대한 질문에서도 2천원대가 압도적이었으며, 3천원~5천원대가 그 뒤를 이었다.

법보시 책에 대한 불만은 예상보다 높았다. 획일적이며 조악한 편집으로 자신있게 권할만한 책자의 부족과 기존 법보시 전용 책들의 경우 내용부실과 오탈자 등이 많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또 겉표지가 투박해 시선을 끌지 못한다거나 핸드백에 들어갈 수 있는 소책자였으면 좋겠다는 견해도 많았다.

특히 법보시 발원자가 원하는 가격과 책자의 가격차에서 오는 재정적 어려움과 제작시 어떤 내용을 선정해야할지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았다. 일정한 모델이 없고 가격대도 천차만별이어서 몇가지 모델을 선정하거나 가격대별 도서목록과 간단한 내용을 포함한 일람표 제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경전류에 몰려있는 책의 종류도 수필류나 시집류 등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불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법보시자들의 안목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책 법보시에 따른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민족사 이상옥부장은 "책을 사지 않고 법보시에 의존한다거나 책을 선택할 기회를 빼앗고 경전류 등에 국한돼 있어 폭넓은 독서를 하기 힘들다는 단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 법보시는 불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주는 쪽과 받는 쪽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등의 커다란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실제로 지난 1월 조계사 불교대학을 졸업하면서 1백명의 도반들에게 졸업기념으로 책을 법보시한 김영대씨(39·강남구 삼성동)는 "부처님 가르침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 법보시라고 생각한다"며 "주고 받는 사람 모두 기쁨을 나눌 수 있어 좋았다"고 전했다.

한명우 기자

화제의 책

나의 참생명… 한탑스님 지음

삶의 문제 어떻게 해답을 구할까

"질문하는 사람은 스스로 문제를 보기 마련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다." 저자 한탑스님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말했다.

'문사수법회'에서 법문한 내용을 묶은 책으로 금강경을 해설하는 방식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단순한 강의가 아닌 스님의 신앙세계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들어있다.

우리자신의 근본적 문제인 삶, 죽음, 인생의 목적 등에 대해, 또 우리 앞에 펼쳐지는 어려운 문제들이 왜 발생하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각각의 주제를 담은 56가지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부처님 탄생 설화의 의미, 윤회, 성불, 기도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되도록 구성돼 있다. 〈문사수 6천원〉

장가 안가길 잘했네 우학스님 지음

산문 안팎서 겪은 에피소드 수필로

〈장가안가길 잘했네〉는 우학스님이 산문 안팎에서 겪은 갖가지 에피소드를 짧은 수필형식으로 엮어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웃음뒤엔 뼈아픈 교훈이 담겨져 있다.

어느 노보살이 대웅전 기둥을 어루만지며 "스님, 40년전에 이 기둥을 제가 세웠습니다"하니 손주녀석이 "할머니는 옛날에 무지 힘이 좋았나 봐요"한다. 이 대화를 듣고 있는 스님은 생각한다. '노보살은 지금도 힘이 장사다.

기둥을 아직도 마음 속에 끌어안고 있다니…'.이 글 마지막에는 '…내가 나란 생각 버리면 마침내 참된 보살 되리라'라는 가르침이 적혀있다.

일화 1백여가지를 소개하고 각각에 '마음을 밝혀 주는 새 법구경'코너를 마련해 일상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잔잔하게 구성돼 있다. 〈좋은인연 6천백원〉

'대교왕경' '사익범천소문경' '초의집'

역경원 한글대장경 3권 출간

한글대장경 3권이 새로 나왔다. 동국대 역경원(원장 월운)에서 번역 출간한 한글대장경은 〈현증삼매대교왕경外〉〈사익범천소문경外〉〈초의집外〉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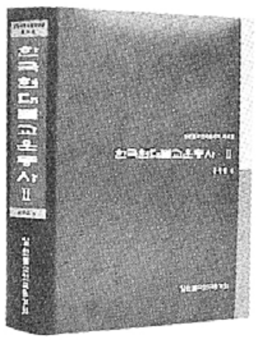
〈현증삼매대교왕경〉은 〈진실섭경〉을 송나라 시호(施護)삼장이 한역한 30권본 〈일체여래진실섭대승현증삼매대교왕경〉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이 경 전체가 모두 18회라 칭해지는 〈금강정경〉가운데 초회에 해당되므로 〈초회금강정경〉이라 하며, 또는 권수가 30권이기에 〈삼십권대교왕경〉이라고도 한다.

〈사익범천소문경〉은 망명(網明)보살이 사익범천(思益梵天) 등을 위하여 모든 법이 공적(空寂)한 이유를 설한 것으로 4권18품으로 구성돼 있다.

이 책에는 〈등집중덕삼매경〉〈집일체복덕삼매경〉〈지심범천소문경〉〈승사유범천소문경〉이 함께 번역 수록돼 있다.

〈초의집外〉에서는 초의선사의 시세계와 선사상, 차(茶)사상을 깊이있게 살피고 있다. 시 외에도 스님이 일생동안 지은 소(疏) 기(記) 상량문 제문 축문 등을 모은 〈일지암문집〉외 〈초의시고〉〈선문사변만어〉〈동다송〉〈다신전〉 등 스님의 저서에 대한 내용이 함께 수록돼 있다.

'88~93년 불교운동사 '정리'
실천승가회, 통불협편 펴내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자료집 〈한국현대불교운동사Ⅱ(통불협 편)〉이 나왔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출판국이 펴낸 이 자료집은 지난 96년 펴냈던 〈한국현대불교운동사Ⅰ(정토·대승 편)〉에 이어 두번째. 이번 자료집에는 80년대 암울한 시대상황 속에서 불교정토구현전국승가회와 민중불교운동연합을 계승해 민족과 불교 자주성을 회복을 위해 노력한 '민족자주 통일불교운동협의회'의 활동 전반을 수록했다. 10.27법난 규탄법회 등 통불협운동의 역사를 정리한 사진과 함께 강령 및 규약이 실려 있으며, 통불협 신문 창간호(89년 4월)~6호까지, 자료집 〈불교운동〉 창간호(89년 3월)~ 7호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부록에는 88년부터 93년까지의 사회동향과 통불협의 활동사항을 시대별로 묶은 연표가 수록돼 있다.

이번 자료집은 첫번째 자료집과 함께 80년대 불교운동사의 전개과정을 담은 소중한 자료로 평가되며, 추후 발간예정인 90년대 종단개혁운동에 대한 자료집까지 나올 경우 한국현대불교운동사를 집대성한 자료로서 그 가치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1099쪽 분량에 4×6국배판으로 가격은 7만원이며 도서출판 행원이 펴냈다.

2백번째 빛깔있는 책

'고려청자' 나왔다

대원사의 '빛깔있는 책들' 시리즈 2백번째인 책인 〈고려청자〉가 나왔다. 고려청자의 신비로운 빛깔은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에도 완벽히 재현해 낼 수 없을 만큼 오묘하다. 그 신비의 근원은 바로 청잣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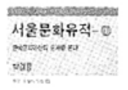
도자전공인 정양모 국립중앙박물관장이 발생부터 발전과 쇠퇴의 과정을 따라가며 고려청자의 신비를 한꺼풀 한꺼풀 벗겨내고 있다. 고려청자는 은은하면서도 맑은 비색의 유약과 유려한 선의 흐름, 탄력있고 생동감 넘치는 형태, 조각도의 힘찬 선과 회화적이며 시적인 운치가 있는 상감문양의 특색을 밝혔다.

도자 명문의 성격, 연대를 밝힌 편년 유물편에서는 아무런 무늬가 없는 소문청자, 동·식물을 본떠 만든 상형청자 등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청자들을 정관장이 손수 찍은 1백컷의 칼라사진을 통해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로나온 책

▲누가 가는 이를 멈추게 하나=대구 신일전문대학 불교부 지도법사로 활동하고 있는 허남준씨의 두번째 시집. 산사와 자연 그리고 삶과 사랑을 소재로 자신의 깊은 불심이 절절이 토해내고 있다. 시 전반에 나타난 공(空)사상은 삶의 지표요 생활의 진리임을 느끼게 한다.〈영하 5천원〉

▲로마에서 중국까지=프랑스 장-노엘 로베르가 쓴 로마에서 중국까지 물질과 사상이 교류된 상황을 총망라한 고대 동서양 교류사. 이중 서양의 기법과 표현양식이 불교의 정신과 융합을 이룬 간다라 미술의 해명은 감탄을 자아낸다. 〈이산 1만2천원〉



▲서울문화유적=서울의 문화유적 1백38곳에 대한 역사와 유래, 관련 설화 등을 밝히면서 문화재적 가치를 사진자료와 함께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중에는 종로에 위치한 승가사를 비롯해 문수사 청룡사 보문사 연화사 청량사 봉천동 마애미륵불 등 30여곳의 불교문화유적도 포함돼 있다.〈수문 9천원〉

▲남산스님의 파스요법=파스로 소화기 질병과 호흡·순환기질병 등 만병을 다스릴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요법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 남산스님은 무엇보다도 정신건강이 제일 중요하며, 이는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할 때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명상 1만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생활속의 불법수행	현대불교신문사	여시아문
2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	성우·지현	민족사
3	불교입문	조계종편집부	조계종출판사
4	생활속의 기도법	일타	효림
5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윤율순	신우당
6	불보살 명호이야기	이윤수	민족사
7	마음 알기 다루기 나누기	용타	대원정사
8	알기쉬운 불교미술	동국불교미술인회	반출판사
9	금강경 강의	무비	불광
10	팔만대장경속에 숨어 있는 108가지 이야기	진현종	혜용

구입문의:(02)737-0695

봉축위원회 공식지정 봉축현수막

▲ 불자의집 교패

▲ 차량용 스티카

▲ 어 깨 띠

〈일반〉 〈고급〉
▲ 리 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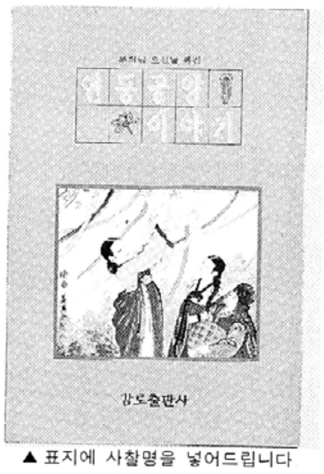
귀의삼보하옵고,
불자는 물론 전국민의 시야가 집중된 이번 봉축행사에
각 사암에서는 봉축위원회 지정 현수막을 사용하여서
불교계의 일치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공식 지정업체로 선정된
감로기획에서는
국민적 축제인 불기2542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현수막을
질기고 품질이 우수한 최고급 천으로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대덕 큰스님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가 격 표◈

품명		규격	가격
현수막		90cm×6m	40,000원
		90cm×8m	50,000원
		90cm×10m	60,000원
불자의집 교패		200개이상 주문시 사찰명	1,000원
차량용 스티카			300원
어깨띠		100개이상 주문시 사찰명	2,500원
리본	일반	500개이상 주문시 사찰명	220원
	고급		330원
	귀빈용		1,000원

감로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02)723-4306·7 FAX:(02)738-8682

부처님오신날 설법자료 및 법보시 책자 보급안내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넣어 드리고, 법회안내, 법보시자 명단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 법보시 특가/1,500원
◆ 크기/신국판, 80페이지

※ 농협 온라인번호
053-01-127096
(예금주 : 선 문 빈)

스님이 들려주신
부처님오신날 이야기

봉축법요의식, 부처님오신날의 의미, 부처님의 탄생이야기, 등공양의 유래와 공덕, 관불의식의 유래, 봉축법문 등을 신도님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습니다.

사찰에서 초파일 법회 홍보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며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인등권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초파일 절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 수록내용 ◈

- 봉축 법요의식
  부처님오신날 봉축 발원문1·2/연등공양 발원문/
  어린이 봉축 발원문/봉축시1·2/팔상예문(八相禮文)
- 이야기 하나
  흰코끼리의 꿈/어린왕자 싯다르타의 탄생/부처님의 전생이야기/
  새벽별…큰 깨침/생명의 고향 열반으로
- 이야기 둘
  부처님 오신날 등을 켠다/만 개의 등, 하나의 등/온 겨레의 잔칫날, 사월 초파일/
  등 공양의 유래/연꽃 등 밝히며, 거리를 밝히며
- 이야기 셋
  초파일 아기 부처님께 길상수 부으며/관불 의식의 유래
- 봉축 법문
  무우수꽃 피는 룸비니동산/하얀연꽃 피어나라

부처님의 생애 신국판 72페이지, 법보시 특가:1,500원
연등공양 이야기 신국판 64페이지, 법보시 특가:1,500원

감로출판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02)723-4306~7, 팩스(02)738-8682